

한국 유가공산업의 장래



이 만 재

서울우유협동조합 생산상무

우리나라 유가공 산업의 발전과정을 대체로 분류한다면 196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의 뉴질랜드방문 이후 1968년 낙농진흥법이 제정되고 낙농업이 본격적으로 산업화하려는 여명기로 볼 수 있고 1970년대는 음용유를 중심으로한 우유소비를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대중화시키는 과정의 성장기로 볼 수 있으며 1980년대는 어느 정도 소비충족에 가까워지는 단계에 이른 낙농, 유가공산업이 수급불안정, 거래의 혼란, 가격의 불합리 등 주로 원유와 유제품의 유통에 관한 문제들이 대두되는 성숙기로 볼 수 있다.

그런가하면 1990년대의 낙농산업은 원유와 유제품의 품질 문제와 위생적 관리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그 영향이 시장관도마저 뒤흔들

어 놓게되는 결과로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어 낙농과 유가공산업의 완성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도 해 보게된다.

우리는 지난 30여년의 짧은 낙농, 유가공산업의 역사적 과정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모습의 낙농과 유가공산업이 전개될 것인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1995년 10월의 유방염우유에 대한 보도와 소비자단체의 조사, 유업체간의 상잔하였던 사건은 우리나라 유가공산업의 장래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강렬하였다.

그후 광우병, 0-157 대장균, 프탈레이트 등의 연속적인 인위적 사건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1997년7월)에 낙농진흥법

개정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도 지난 2년간 일련의 우유문제에 관한 사회적관심의 영향이 없지 않다고 본다.

1996년의 낙농제도개선위원회가 제시한 낙농, 유가공산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 발전대안은 낙농진흥법 개정 이후 법 집행 실무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다.

21세기를 두해 앞둔 지금 세계의 유가공 산업은 선진국의 내수에서는 다양한 경쟁 또는 대체음료 등으로 다소 침체 내지는 감소의 국면을 맞고 있으며 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유제품 수요에 오세아니아국들과 미국이 활황국면을 누리고 있다.

그것은 마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케인즈그룹을 주도해온 호주와

미국의 입맛에 맞는 유제품협상결과에 따른 과실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의 낙농상황으로 볼 때 우리 유제품이 수출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므로 결국 내수위주의 유가공업으로의 장래를 예상한다면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과 일본의 유가공업이 총체적으로 일치성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가공업체의 대통합과 시장의 대통합으로 볼 수 있다.

유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대형 유업체로 점차 몰리고 있고 낙농협동조합들은 시유시장을 통합시켜 왔다.

영국의 MILK MARQUE, 프랑스의 CLE(전ULN), 덴마크의 MD FOOD, 노르웨이의 TINE, 스웨덴의 ARLA 등은 모두 낙농협동조합으로 전국의 시유시장을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이상 통합시키고 있다. 대체로 1980년대에 일어난 결과다.

일본의 설인유업(SNOW BRAND)도 낙농협동조합의 투자회사로서 시장점유율의 집중현상으로 거대유업체가됨으로서 1995년의 매출액이 미국 최대의 유업체인 KRAFT의 U\$32억보다 1.7배나 많은 U\$54억이나 된다. 미국우유시장의 10%밖에 되지않은 일본의 시장에서 일본유업체가 미국서 제일 큰 유업체보다 훨씬 매출액이 많다는 점으로 일본우유시장의 판도를 쉽게 읽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워낙 땅이 넓고

지역적 특성이 크기 때문에 동부해안지역,오대호주변의 중북부지역, 록키산맥서부 태평양연안지역 그리고 남부지역 등과 같이 나누어 지역적으로 시장이 형성 발달되고 있다. 미국의 우유시장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있는 우유판매명령(MILK-MARKETING ORDER)도 록키산맥 넘어 지역은 별개취급하고 있다. 현재는 이 명령체계를 33개지역에서 10~14개지역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유시장의 낙농협동조합으로의 집중현상은 이와같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결과이기도하다.

왜 협동조합인가?

어느 선진국이든지 흰우유는 국민의 기본식량에 준하는 품목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생산기반의 보호와 가격의 통제가 정부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개입되어 있다.

그래서 흰우유에는 높은 이익을 유가공업자가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미국의 우유판매명령도 그러한 수단인 하나이다.

그래서 우유를 직접생산하는 낙농가로 결성된 낙농협동조합들은 원유값만 수탈당하지 않고 제값만 받으면 만족하므로 시유시장에 적극성을 보이지만 일반 개인유업체들은 이익도 별로없고 정부기관에 간섭이나 받는 시유보다는 부가가치가 높고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가공유제품이나 유사유제품등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서구의 협동조합이 우리나라 처럼 중앙집중식이 아니라 지역에 농민들이 상인들과의 거래에서 단체교섭으로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생되었기 때문에 매우 영세하였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로 대기업이 나타나고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협동조합도 전국단위로 통합되고 원유의 처리를 위하여 시유처리시설을 하게된다. 그 결과가 오늘날 선진국에서의 시유시장이 낙농협동조합으로 대 통합되어온 과정이요 배경이다.

그리고 낙농은 우유라는 특성 때문에 거래교섭력이 전혀없는 개개낙농가가 스스로 우유가격결정에 수탈당하지 않기 위하여 단체교섭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이 문제는 낙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언제나 낙농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왜 낙농협동조합인가라는 질문은 그래서 미국의 대학 낙농학교재의 첫장에 나오는 과제로 선정되어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많은 낙농가가 개인유업체들과 개별거래를하고 있지만 소수의 낙농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리한 우유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처하여 있다. 그런 이유로 낙농진흥법의 국회 통과를 낙농가에게 공정한 거래를 보장해주는 보호기능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21세기 대비, 낙농육우산업발전을 위한 2가지 과제 ④

우리나라 유가공산업의 현재 상황이 위와같은 낙농선진국들의 과거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불공정한 원유의 검사와 거래, 원유수급의 불안정시 손실을 낙농가에게 떠넘기는 횡포 등은 60년전의 선진국들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지난 봄 서울우유협동조합의 대전충남우유협동조합과의 유가공사업부문의 통합은 시기적으로 매우 야심에 찬 계획일 수 있다.

원유의 거래 정비를 위해서 집유일원화를 시행하기 위한 낙농진흥법이 활발하게 국회통과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는 현재 또다른 시유시장의 집중화현상촉발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많으며 우리나라 유가공시장의 일대 정리가 예고되는 하나의 사건이다.

몇주전에 일어난 우유폐카톤처리정체로 유가공장에서 대란이 일어났다.

종이로 만든 우유포장지의 사용 후 수거된 것이 우유공장마다 산더미처럼 쌓여 아무도 가져가지 않으려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했다.

근본원인은 우유가 담긴 폐카톤이 여름철에 썩어가는 고약한 냄새와 수입폐지의 자유화로 국내폐펄프의 값이 없고 아무도 원료펄프로 쓰지 않으려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도 재생휴지를 쓰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폐카톤 처리업체들이 모두 일시에 손을 놓아버린 것

이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우유공장을 세울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유업체들은 우유포장방법을 너무 종이용기에 의존하고 있다.

거의 회사마다 95%이상이 종이용기이다.

유럽연합국들은 종이용기는 60% 밖에 쓰지 않는다. 프라스틱도 26%, 유리병도 12%, 강통도 2% 쓰고 있다.

미국은 반대로 프라스틱을 71%, 종이는 27%밖에 안된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그래도 종이는 73%만 쓰고, 유리병 12%, 프라스틱13%를 쓰고 있다.

호주는 프라스틱이 51%, 종이 46%, 유리병 1%를 쓴다.

종이 용기는 1리터이상 담기가 곤란하다. 1.5리터나 1갤런 짜리 큰 종이용기도 있지만 많이 쓰지 않는다. 그래서 위 조사내용과 같이 우유소비를 많이하는 나라는 종이용기를 많이 쓸 수가 없게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음용 흰우유소비량이 연간 30kg 정도지만 미국은 88kg, 호주는 103kg, 일본은 44kg, 유럽연합은 북구 국가들은 모두 130kg 안밖이고 비교적 적게마시는 독일 프랑스는 70kg 정도이다.

앞으로 우유포장규격의 대형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프라스틱용기의 사용비율이 매우 높아 질 것은 뻔한 일이다.

두달전에 1등급 우유광고 시비가 있었다.

아직도 우리 유업체들이 유치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로 장사를 하려하고 있다는 서글픈 현실을 노정한 해프닝이다.

참으로 소비자들에게 모든 흰우유를 1등급 받은 원유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낙농제도개선을 추진해온 목적이라면 몇몇 유업체들이 먼저하였다고 떠들어대면 또 한 번 우리 유업체가 국민 전체의 소비자들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소치가 아닐 수 없으며 낙농가에 대한 멸시이기도 하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우유에 대한 개념의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우유는 모든 국민들이 매일 마시고 있으며 국민들이 마시는 우유는 어느 공장에서 처리 포장된 것이든 일정한 규격에 합격된 것으로 같은 소비만족도를 가지고 음용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유질개선 속도로 보아 곧 모든 유업체들이 1등급우유로 흰우유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때 모든 국민들이 1등급우유로만 만든 우유를 마시게되면 우리의 우유소비는 완전하게 선진국 수준이되는 것이고 유가공산업도 매우 안정된 생산활동을 하고 국민들로 부터도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낙농경영개선훈이 전국 낙농가에게 골고루 시행되어 지역적인 유질차등이 하루 빨리 없어지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우유시장 처럼 요란한 특별우유선전은 세계 어느나라에 가 봐도 없다. 거짓말을 많이하는 특별우유 일수록 더 비싸고 더 많이 팔린다.

이것도 우유라는 식량의 국민소비개념에 대한 착각에 불과하다.

그 결과는 전체적인 소비문화로 전체 낙농가에게, 그리고 전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결국 이러한 우유들도 불원간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유에 대한 올바른 상식과 정보를 이제 소비자들이 대량으로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유업체들의 유가공 생산설비는 세계적 수준에 있으나 자동화 부분에 다소 낙후되어 있다.

최첨단 자동화 유가공설비라면 우리나라 유업체들은 현재의 공장 인력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원유를 약 400톤 처리하는 유가공장이 공장 작업인원을 약 300명 쓰는 것이 보통인데 유럽의 한 공장은 원유를 350톤 처리하는데 공장장과 관리 직원, 트럭운전수 까지 포함하여 70여명에 불과하다. 이 부분은 향후 10년 이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으리라 본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신설공장에서 첨단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 유가공산업의 가장 취약 부분은 유통분야이다.

최근 식품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업체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수거하는 자사제품들이 과거보다 엄청나게 늘어나 세균이 많고 변질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대부분 유가공장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냉장보관이나 취급이 되지않은 결과로 판정 받고 있다. 몇 달전 고속도로휴게

현재의 유질개선 속도로 보아 곧 모든 유업체들이 1등급우유로 흰우유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때 모든 국민들이 1등급우유로만 만든 우유를 마시게되면 우리의 우유소비는 완전하게 선진국수준이 되는 것이고 유가공산업도 매우 안정된 생산활동을 하고 국민들로 부터도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낙농경영개선지도가 전국 낙농가에게 골고루 시행되어 지역적인 유질차등이 하루 빨리 없어지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다.

소에서 일어난 변질우유 사고도 결국 휴게소 직원이 우유를 받아 상온에 방치해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형 유통회사 마저도 우유취급과정을 추적해 보면 10도가 훨씬 넘는 냉장고나 차량탑재상태가 매우 많다.

더욱이 배달원들의 유통실태는 거론하기가 부끄러운 실태이다.

유업체들이 너무나 안일한 태도이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결여이다.

미국의 장기보존살균유가 버젓이 주한미군들에게 수입되어 공급하고 있고 내년 부터 멸균유 시장이 활짝 열리면 머지 않은 장래 완벽한 유통장비와 체계로 수입된 살균유와 멸균유가 국산 시유를 몰아낼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한 것이다.

냉장이 완벽하게 된 예쁘고 깨끗한 우유 배달차가 골목을 누비며 희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배달원이 영문자로 표시된 수입우유를 판다고 상상해보라.

우리나라 주부들은 당장 그 우유를 사먹게 될 것이다.

우리 유업체들이 참으로 각성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러한 일들을 상상하면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곧 2000년이되면 우리나라 유가공 산업이 완숙된 모습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우선 제도적으로 원유의 검사가 공영화되어 공정하게 이루어져 유질이 향상되고 전반적인 유통질서가 잡히게 된다면 낙농진흥법이 강제적으로나마 우리 유통계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선진국민들과 같이 1995년의 여처구니 없는 유방염 보도를 보았을 때 "참, 그 기자가 얼마나 기사거리가 없어 저런 무식한 말만 하고있을까?"하고 콧방귀나 날리는 수준의 낙농과 우유상식을 가지는 성숙된 소비자가 되어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낙농 발전을 위하여 낙농가들도 소수정예의 진짜배기 낙농가들로 알차고 능률적인 우유생산을 하게되기를 기대한다.

(필자연락처 : 02-433-8151)